

# 書庫에 대한 建築的 諸問題

木野修造 著

李澤濬 譯

## 머리말

圖書館이 그 藏書量을 자랑하고, 資料의 保存을 첫째의 目的으로 하고 있던 時代에는 圖書館의 建築計劃이란 書庫와 其他 部門을 如何히 調和를 이루게 하느냐는 것으로, 그 結果로서 書庫를 塔狀 등 象徴的으로 取扱한 形態의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書庫는 利用者의 接架가 不可能한 閉架書庫로 하여 運營 되어왔다. 그러나 利用을 前提로 되어가는 오늘의 情勢에서는 書庫는 奉仕活動을 지탱하는 一部이며, 圖書館의 建築計劃을 決定하는 中心要素로서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또 書庫의 性格 그 自本도 人間主体의 開架書庫로 移行해 가고 있다. 그러나 巨大한 藏書를 간직하지 않고는 아니되는 어느 種類의 圖書館에 있어서는 利用率이 低下된 圖書를 中心으로 하는 보다 높은 收容力을 지닌 閉架書庫를 択하고, 또 保存書庫를 設置하여 書庫 全体의 收納效率을 向上시키는 思想도 경우에 따라서는 必要하다. 書庫計劃이 全部인 保存圖書館도 오늘 날의 테에마가 되어지고 있다. 즉 圖書館計劃에 있어서의 書庫位置를 定함은 變質되어가고 있다고는 하나 그 重要性은 喪失되지 않고, 오히려 보다 純粹한 形으로 새 로워지고 있는 過程이라 생각된다.

圖書館建築에 있어서의 書庫計劃 이라함은 어느 圖書館이 어떠한 種類의 書庫를 다른 部門과 어떻게 調和를 이룰 것인가 하는 全体計劃上의 것과, 書庫의 形狀, 溫湿度 條件, 防災設備, 書架 및 書架配置 등의 書庫라는 空間에 관한 것으로 大別되나, 前者는 圖書館計劃 이라는 보다 큰 問題임으로 이 小稿에서는 主로 後者의 觀點에서 書庫의 計劃의 이것 저것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 書庫의 容量

資料는 無限히 增加함을 前提로 한다면 항상 그 容量을 擴大할 수 있는 書庫가 必要하게 된다. 圖書館建築에 관한 많은 參考書에서도 書庫增築의 可能性을 지나야 할 重要性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 그러나 別棟에 書庫棟을 세워 複道로 連結한다는 이른바 別棟增築의 手法에 의한 것이 아니고 既存書庫의 上部 혹은 側面에 直接增築하는 單純增築으로 成功한 例는 實際적으로 極히 적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單純增築을 위한 柱

나 梁의 構造的 補強 등의 配慮가 보람있게 된 例가 보다 많지않았는지. 空間에 이어져갈 増築工事は 圖書館의 日常的인 活動에 많은 制約을 加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休館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도 있을 것이다. 増築된 部分에서 雨水가 浸入하기 쉬운 技術上의 問題도 있다. 増築工事を 事實上 困難하게 하는 防災設備를 中心으로한 建築閉架法規의 政正은 항상 생각되어진다. 防災設備를 時代의 要求에 맞추어 充實하게 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겠으나, 그것이 増築部分 뿐 아니라 既存部分의 손질을 요구되어지게 된다면 工事的 困難性은 大幅 增大하여 必要的 資金도 또 倍增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意味에서 書庫를 増築한다면 單純 槩이 아니라 別棟増築이 보다 낫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먼저 計劃時点에서 조금이라도 容量을 크게하여 適正規模에 近接시키는 努力을 強調해 둔다.

그러면 이 適正規模란 어느 程度의 量이 될 것인가. 지금까지 開架書庫는 利用의 便宜上 10万冊程度를 上限으로 하였으나, 오늘 날에는 10万冊을 훨씬 넘는 開架書庫를 갖는 公共圖書館이 차츰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삶이 있는 資料이면 그 量의 上限은 없다는 것으로, 아마도 一部의 例外를 除하고, 開架·閉架의 書庫型式을 不問 그 容量을 最大로 하는 것이 오늘날의 適正規模의 생각이 아닐런지.

즉 計劃時点에서는 될 수 있는데로 書庫를 크게 잡고, 한편으로는 그 滿杯時에 맞추어 單純増築이 아닌 対応策을 마련해 두는 것이 보다 낫은 書庫計劃의 必要條件일 것이다. 그 対応策이란, 예컨대 第一線 公共圖書館에서는 資料의 廢棄일 것이며, 相互協力上의 保存圖書館일 것이며, 혹은 書庫棟의 建設등과 같은 多様な 것이 생각된다.

### 地下書庫에 대하여

東北大学中央圖書館 以後 大規模의 閉架書庫를 갖고 있는 圖書館에서는 地下에 그 閉架書庫를 設置하는 例가 增加해가고 있다. 그 理由로서 다음과 같은일이 생각된다. 書庫内の 出納時 步行動線의 研究나 學術에 対応할 수 있는 排架등의 面에서, 書庫는 平面的으로 넓은 것이 바람직함을 알게 되었다.

즉 많은 層을 겹겹으로 하는것 보다 層數를 줄여 大面積의 것으로 하는 편이 利用에 便利함을 認識하게 되었다. 建築構造 力學的으로는 重量이 많은 書庫는 될수록 底位置에 있는 것이 有利하지만, 主階層인 1層은 利用者 主体의 空間으로서 이미 使用하고 있다. 書庫를 위하여 남겨진 場所는 地下뿐이다.

地下書庫에서 먼저 問題되는 것은 防水·防湿対策일 것이다. 洪水등에 의하여 建物이 水沒할 危險性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地下書庫를 만드는 것은 삼가야 한다면, 防水·防湿対策은 一般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技術的으로 困難한 일은 아니다. 땅에 接하는 壁을 二重으로 하고 그 中間部를 換氣함으로서 外部로부터의 水·湿氣對

策은 充分하다. 이와 같은 対策이 되어 있다면 地下에 있으므로 湿度가 높다는 理論的인 根拠는 없다.

溫度  $22^{\circ}\text{C} \pm 5^{\circ}\text{C}$ , 湿度  $60\% \pm 5\%$  程度가 通常 書庫의 溫濕度의 條件이다. 이 幅을 어떻게 設定할 것인가는 空調設備工事 및 그것들의 運轉經費의 經濟性에 關聯한 어려운 問題이다. 利用을 위한 資料를 收納하는 書庫는 美術品 收藏庫와는 달라 恒溫·恒濕이라 불리는 만치 變化의 幅을 적게 할 必要는 없으나, 그狀態에 近接시키는 意義있는 일이다. 防水·防濕対策이 이루어진 地下書庫는 熱變化가 적은 地下에 있어 外氣의 出入도 적은데서 이 幅을 적게하는 點에서는 대단히 有利하다.

地下書庫에 있어서는 溫濕度條件에 變化를 일으키는 큰 要因은 人間이다. 人間이 入庫하지않은 圖書館閉館時에는 空調設備를 運轉할 必要도 없다. 이것은 既히 많은 事例에 의하여 證明되고 있으나, 「大學圖書館研究17号」에는 竹態武久氏에 의하여 熊本大學圖書館地下書庫의 溫濕度狀態에 對한 詳細한 報告가 있으므로 興味있는 讀者는 부디 參照바람.

여기에서 注意하여야 할 것은 建物の 乾燥狀態 즉 建物 自体가 지니고 있는 濕氣이다. 물로 반죽된 콘크리트가 完全히 乾燥되자면 상당한 期間이 必要하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으므로 建물이 마려진 後부터 그 使用을 開始하기까지는 적어도 數個月의 乾燥期間을 가져야 한다. 地下書庫의 壁面은 內側에서부터 乾燥가 進行됨으로 이 期間이 길어질 傾向이 있다. 이러한 點을 들어 地下書庫의 欠點으로 보는 論도 있으나, 그 期間이 지나면 書庫의 溫濕度條件을 어느 幅으로 維持하는데 容易한 長點은 永久的으로 持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물며 이 乾燥期間이 充分하지 못할 경우에는 空調機내 除濕機등의 24時間 稼動에 의하여 書庫를 乾燥狀態로 빠르게 이끌어가는 努力을 하는것은 當然 하겠으나 建物에 따라서는 반드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附記해 둔다.

書庫가 地下에 있다는 것보다 오히려 建物の 下部에 있다는 것으로서 設備配管 등으로 부터의 漏水가 結果로 되어 書庫에 흘러나온다는 危險性은 理論上 높다. 1978年 스텐포드大學 메이야아圖書館에서 스프링쿠올러 配管의 破損에 의하여 地下의 積層書庫에 물이 흘러들어가 約5萬冊의 圖書가 汚損되는 事故가 發生하였다. 多幸히도 그圖書는 直時 冷凍하여 真空乾燥處理로 大部分을 蘇生시키는데 成功하였다. 「圖書館の窓」東京大學附屬圖書館月報 Vol 19, No. 8에서 柴尾美紀子氏에 의하여 그 經過는 紹介되고 있다. 萬一에 對備하여 이 事例를 研究해 두는것이 重要할 것이다.

### 積層書庫의 經濟效果

故 佐藤 仁, 橫濱國立大學教授의 試算에 의하면, 各各 12萬冊의 容量을 가진 一層(單層)의 書架에 의한 書庫와 5層의 積層書庫와의 사이에는 2倍 程友의 容積差가 있

다. 建築費는 單純히 容積에 比例하여 增加하는 것은 아니지만 建築費에 관한 限 積層 書庫의 有利함은 明白하다. 積層書庫는 多層으로 할수록 그 經濟效果는 높겠으나 오늘날은 함부로 7, 8層의 것은 全然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既述한바와 같이 書庫의 層數를 減하여 一層(單層)의 面積을 크게하는 것이 便利하다함을 理解되어온 연유이긴 하나 實情은 防災上의 理由로 行政指導에 의하여 2層으로 制限되고 있기 때문이다. 2層의 積層書庫는 經濟效果라는 点에서 좀 不足한 경우가 많다. 建築計劃上은 바람직한 3層의 것도 곳에 따라서는 建設이 可能한것 같으나 그 行政指導에서 明確한技術的인 規準을 明示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場所에서는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오늘날의 積層書庫를 追求하는 最大의 問題는 그 法的인 整備가 되지 않음에 있다.

積層書庫의 床板은 鉄板을 加工한 것이며, 多數의 利用者가 步行하는데는 剛性이나 騒音이라는 点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改善하는데 있어서는 技術的으로 可能하겠으나 積層書庫의 經濟效果가 減少됨으로 實際的인 아니다. 즉 積層書庫는 多數의 利用者가 入庫하는 것을 前提로 한 書庫로는 適合하지 않다. 그러나 利用者를 安易하게 入庫시키거나 혹은 純全히 開架書庫로서 使用하는 등 圖書館이나 建築設計者의 積層書庫에 대한 沒理解를 示顯하는 事例도 적지 않다. 行政當局의 積層書庫에 대한 지나친 指導는 이 曖昧한 使用方法에 起因하고 있는 部分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한다. 全國 어디에나 適切한 防災對策만 되어 있다면 3層程度의 積層書庫가 使用되게끔 法令의 整備를 行政當局에 要求하기 위해서도 積層書庫의 經濟效果만을 追求한 安易한 使用方法은 止揚하여야 한다.

### 書庫의 防災設備

積層書庫의 安易한 使用方法은 書庫의 防災設備의 設置에 관하여도 좋지 않은 影響을 끼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防災設備는 建築基本法이나 消防法 등에서 그 設置가 義務지워지고 있으나, 事故나 災害에 의하여 해마다 強化되는 性質을 갖고 있다. 書庫는 日常的인 體驗으로는 결코 타버리는 것이 아니나 材料인 종이는 可燃物이며 書庫의 萬一의 경우 火災荷重은 크게 危險하다. 혹은 火災時에 突入하여 消火救援活動을 하고 있는 消防士의 生命을 지키고자 하는 立場은 잘 理解되지만, 書庫에서 發火된 例는 歷史的으로도 皆無에 가까운 事實을 부디 評價하여야 한다. 만약 發火되면 例로서 消火活動이 成功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圖書는 죽어버린다는 것을 館員이나 設計者도 잘 알고 있다. 事故를 일으킬지도 모를 利用者의 入庫를 制限하고 있는 書庫에서는 防火區劃의 明確化, 避難動線과 日常動線의 一致等 防災計劃의 原則에 맞는 設計라면 防災設備는 輕微한 것으로도 좋다는 法的 運用은 지나친 處事일 것이다.

書庫에서는 兇火하지 않는다는 觀點에 서면, 書庫內를 다시 防火区劃으로 갈라 使用하기에 不便하게 할 必要는 없다. 書庫와 다른 部分과의 사이는 耐火性能이 높은 壁이나 門으로 區劃하여 書庫內는 法으로 許用되는 最大限의 區劃面積이 되게끔 하는 것이 現代의 함부로 使用하는 것을 重視한 書庫計劃의 基本일 것이다.

書庫의 規模가 크게 되고, 다시 地下에 位置하게 되면 当局은 스프링쿨러 設備의 設置를 要求해 온다. 兇火된 경우에는 防災設備로 빌딩火災에 있어서 이미 많은 人命을 救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그 配管이나 헤드에서의 濡水事故에 대한 危險性이 있어 兇火가 念慮없는 書庫에 있어서는 결코 바람직한 設備는 못된다. 設計者는 가스 消火設備 등 事故의 경우에 圖書를 위한 安全한 設備를 採用하겠음 監督機關과 充分한 交涉를 할 必要가 있다. 아마도 書庫에 대한 理想의인 法体系는 單純하게 書庫의 面積이나 位置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入庫하는 利用者의 數나 他用途와의 混在狀態에 따라 防災設備를 設置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法을 可能하게 하기 위하여도 既存의 書庫에 다른 物品을 持込한다든가 閉架書庫에 多數의 사람들을 入庫시키는 등 書庫의 安全性에 疑問을 提起할 수 있는 圖書館活動은 바로 잡아야 하겠다.

### 使用하기에 便利한 書庫의 平面形

지금까지는 主로 書庫의 斷面的인 形狀에 대하여 記述하였으나, 여기에서는 그 平面形狀에서 利用의 수월함과 收納效率과의 사이에 이러나기 쉬운 相反되는 關係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싶다. 그 關係가 理解하기 쉬운 것은 書架의 間隔이다. 收納效率을 높이기 위하여는 間隔을 좁히는 것, 즉 書架사이의 通路面積 負擔을 적게하는 것이 効果的이다. 그 負擔을 가장 적게하는 것이 効果的이다. 그 負擔을 最小化한 것이 移動書架가 되겠으나 이것은 同時에 多人數가 利用하기에는 不適하며, 또 閉架書庫로 使用할 수 없다.

收納效率을 追求하는 書庫의 平面形은 될수 있는 한 正方形에 가깝게하는 것이 좋다. 가령 書架間隔으로 算出되는 單位面積當의 圖書收容力과, 그 書架가 놓여진 書庫의 單位面積當의 圖書收容力의 比를 書庫의 有效率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書庫平面的 縱橫比 約 1 : 1의 甲南大學圖書館 書庫의 有效率は 90%를 넘고, 縱橫比 約 1 : 3의 武藏大學圖書館書庫의 그것은 10%強으로 上廻하고 있다. 그러나 거이 全部의 書架가 中央通路에 接하고 있는 後者 쪽이 圖書配置는 알기 쉽다. 그것은 甲南大學圖書館이 閉架書庫의 性格이 強한데 起因된 차이지만, 利用하기 쉬운점과 收納效率과의 關係를 나타내는 좋은 例이다. 더욱 餘談이 되겠으나, 利用者가 接架하는 書庫에서는 書架 7~9連마다에 通路를 둔다는 從來의 常識은 逆效果이다. 書庫內를 熟知하고 있는 圖書館員

으로서는 이것은 歩行距離를 줄이는 勞力低減手段이 되겠으나 一般의 利用者로서는 通路마다 나아갈 方向에 混亂을 招來시킬 念慮가 있다. 世界最大의 開架書庫를 가지고 있는 시카고大學 레에겐스타인圖書館의 書架는 20連이나 되는 것도 있었다는 것을 적어 두고싶다.

### 排架方式과 收納效率

通常 圖書의 內容에 의한 分類別 排架에 比하여 보다 收納效率이 높은 方式은 形態別 排架이다. 分類別에서는 資料가 分類番号順으로 排架되어지고 있으므로 類似한 內容의 것이 한 場所에 類集되어 利用者에게는 便利하나 棚板의 間隔을 여러 形態의 圖書中 大本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段數는 적게 된다. 그리고 새로 受入되는 圖書를 위하여 各各의 書架에 空白의 余裕를 準備해 두어야한다. 形態別 排架는 圖書의 形에 의하여 区分하여 受入順으로 排架하는 것으로 裝幀의 大小에 의한 空白이나 새로 受入되는 圖書를 위한 余白이 必要없게 되기 때문에 收納效率은 飛躍의으로 向上된다. 이 方式은 圖書의 檢索手段이 없이는 圖書에 到達하지 못함으로 開架書庫에는 適合하지 않으나, 如何間 어떠한 檢索手段을 必要로 하는 大規模의 開架書庫에서는 이 方式의 導入을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뉴우요오크公共圖書館에서는 分類別에서 形態別로 移行하여 30% 以上の 收納效率을 向上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次資料의 整備, 機械情報檢索技術의 發達과 더불어 開架書庫에 대한 새로운 機運이 있는 오늘 이 形態別 排架方式의 利點을 다시 한번 追求할만 하다.

### 書架의 耐震性

關東大震災級の 地震이 일어날 때에 人的인 被害를 주지않는 것을 目標로 하여 強하게 만들어진 建物에 比하여 宮城沖地震 以來 強化되었다고는 하나 書架의 地震對策은 아직도 充分하지않다고 생각된다. 地震에 가장 強한 書架는 上下 左右를 固定시킨 積層書架이며, 가장 弱한 것은 棚床으로 만들어진 單純한 書架이다. 入庫하는 人數가 극히 적은 積層書架에 의한 開架書庫가 安全하며, 多數의 사람들이 모이는 第一線 公共圖書館의 開架書庫가 危險함이 皮肉으로 느낄수 있는 現狀임을 먼저 認識할 必要가 있다.

書架는 바닥에 固定시킨다. 높은 書架를 使用하는 경우에는 머리部分을 서로 연결한다. 書架를 配置할 때에 融通性(flexibility)을 重視하는 생각은 그 發生의 땅 美國에 있어서도 地震時 書架의 転倒에의 配慮에서 書架 固定의 方式으로 變化하고 있다. 더욱 등이 높은 그들로서는 머리部分을 연결하는 煩雜을 참을수 없는 듯 書架의 다리部分을 固定시키는 것을 主流로 하고 있으나, 그 固定法은 信念이 넘쳐있는 것으로 우리들의

미숙한 생각을 痛感케 한다.

특히 뒤져있는 것이 木製書架의 耐震對策이다. 鋼製書架에 比較한다면 木製書架의 重心은 낮고 地震에 強한 性質을 지니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不充分하다. 다시 重心을 낮추는 方法이나 鋼製에 比較한다면 技術적으로는 어렵겠으나 다리部分이나 머리部分의 연결을 併用할 必要가 있다. 木製書架가 지니고 있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霧囲氣때문에 地震이 일어났을 때의 危險性을 모두 잃어버리고 있거나 않은가 생각된다. 바닥에 固定시키고 머리部分을 연결한 書架는 移動의 自由를 喪失한다. 近年에 使用하기 시작한 鋼製의 시스템화된 書架는 이 喪失된 自由를 棚板이나 附屬品을 交換한다는 書架 内部의 變化로서 카바하는 것은 地震對策上 實際的이고 바람직한 것이나 아직도 改良의 余地는 있는 것으로 앞으로의 擴充을 期待하고 있다.

### 使用이 便利한 書架

開架用 書架에서는 下段을 前方으로 突出시켜 잘 보이게 한 것이 一般的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말 效果가 있는지 疑問됨이 결코 적지않다. 人間工學的으로 생각한다면 실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는 下段은 相當한 角度를 가지고 前方에 突出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 極限의 모습이 書店에서 使用하고 있는 書架에서, 그 下段은 水平으로 되어 있다. 下段이 角度를 가지고 前方에 突出된다면 書架의 間隔도 그에 適合하도록 하지않으면 안된다. 잘 보일 程度로 突出시킨 書架에서는 그 上層距離로서 2.4m 前後가 必要하겠으나 下段이 水平인 書店型의 書架를 使用하는 경우에는 이 距離를 3m로 하여도 書架間通路로서 充分한 余裕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더욱 下段이 突出되었다고 하여도 車椅子를 利用하는 사람이 接架할때의 困難度는 느러난다는 問題가 있음을 마음에 새겨둘 必要가 있다.

高書架에 比한다면 低書架가 바람직한 傾向이겠으나 下段만을 使用하는 低書架는 적지않은 利用上의 問題를 안고 있다. 本來 低書架는 圖書를 棚板위에 올려놓고 홀터 잃어볼 때 便利한 것같은 行爲가 생각되는 경우에만 使用되어질 것이 겠으나 現在 使用하고 있는 方法을 본다면, 低書庫를 設置함으로써 얻어지는 空間的인 解放感을 書架로서의 使用에 便利함을 圖書館員도 建築設計者도 誤解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뒤.

第一線 公共圖書館의 開架室 書架에 늘어놓은 많은 圖書中에서 利用者 眼前의 數段이 빛지우는 範圍가 다른 棚의 範圍에 比하여 보다 높은 利用率을 갖는다고 한다. 一般商店에 있어서 販賣效率이 좋은 商品展示棚의 높이는 70~150cm라는 定說과 一致되는 이 現象은, 第一線의 公共圖書館을 訪問하는 사람들은 미리 읽을거리를 決定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종종 눈에 닿는 圖書를 利用하는 傾向이 強함을 나타내고 있다. 同時に 잘 보이게 마련된 下段일지라도 眼前의 數段을 애필할 힘을 갖지못함을 意味한다

고 하겠다.

이와같이 본다면 使用에 便利한 書架의 모습이 비교적 確實해진다. 그것은 通常 5段 또는 6段의 높이를 갖춘 下2段중 棚板을 除去한 것이 近似한 모습이다. 이 書架의 重心은 높아짐으로 下리部分을 固定하지않으면 안되지만, 머리部分까지의 必要가 없음은 實驗적으로 確實해졌다. 下段의 使用을 않는다면 書架의 間隔은 더욱 적게 된다. 利用者가 많은 書庫에서도 1.8m의 書架間 心層距離가 있으면 充分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1.5m程度에서도 實用이 될 것이다. 書架의 間隔을 좁힌다면 書架數를 늘려나갈 수 있으므로 下段 使用을 하지않는다하여도 全体로서의 收納效率은 變함이 없게 되어 車椅子 利用者를 包含한 모든 利用者로 하여금 보다 便利하게 利用되리라 나는 確信하고 있다.

書架의 形狀도 書架間隔의 關係와 많은 事例를 通하여 여러가지로 試圖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下段을 突出시킴으로서 書架間隔을 크게한다는 일련의 過程이며, 下段의 使用을 하지않고 書架間隔을 좁힌다는 實驗을 中止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이것을 實証하는 義務를 갖고 있으나 現在 進行하고 있는 大學圖書館의 計劃에서 드디어 이 試圖를 實行하는 機會를 주어지게 되었으니 如何間 그 結果에 대하여 報告하고자 한다.

### 맺 음

書庫를 잘 利用하게 하는 것과 收納效率은 恆常 相反하는 傾向을 지니고 있다. 書庫의 計劃이란, 그 圖書館의 性格에 맞추어 兩者의 妥協點을 찾아내는 作業이다. 兩者의 妥協點이라함은 각기 어느 所定의 性能을 發揮하는 點이지만 往往 어느것이나 中途에 竜頭蛇尾되기 쉬우므로 注意하여 綿密한 研究에 의하여 그 點을 求할 必要가 있다. 더욱 여러가지 事情에서 適切한 解答을 얻지못하는 경우에는 利用에 便利함 혹은 收納效率의 어느 한편에 重點을 두고 計劃하는 것이 安全할 것이다. (本稿는 “書庫をめぐる建築的諸問題”, 現代の圖書館 Vol. 21, No. 1, pp. 25~29를 번역한 것임)

### ● 未納金を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協會는 財政自立이 마련되지 못한 채 다만 여러 會員들이 負擔하는 會費와 出版物代金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協會의 어려움을 깊이 理解하시어 未納된 団体会費와 個人會費 그리고 出版代金を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